



주간통일정세 2010-41(2010.10.04~10.1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4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정은, 김정일 두차례 방중 모두 동행(10/4, 연합뉴스)**
 -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두 차례 중국 방문 때 모두 동행한 것으로 전해짐.
 -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양복 차림을 하고 경호원처럼 행동하면서 김 위원장을 곁에서 지키는 모양새를 갖췄다”면서 “앞으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전대 수령’(김정일)에 대한 김정은의 충성심을 선전하는 사례로 많이 인용될 것 같다”고 말함.
 - 이어 “8월 방중은 5월 방중 때부터 기획됐던 것으로, 김 위원장과 정은, 정철 세 부자가 김일성 사적지를 답사하는 일종의 ‘성지순례’ 성격이 강했다”면서 “김정은을 중국 측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히 비밀로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김정은의 동향은 중국 측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이번 당대표자회 직후 최태복 당 비서가 서둘러 중국에 간 것도 후계자 김정은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제 김정은도 공식적인 후계자가 됐기 때문에 과거 김 위원장처럼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함.
- **北신문, “김일성 동지의 후손, 영도자중심 단결해야”(10/4, 노동신문)**
 - 신문은 1면 전체를 ‘편집국 논설’로 편집, 영도자 중심의 일심단결을 강도높게 촉구
 - 노동신문이 편집국논설을 실은 것은 작년 당창건 기념일(10월10일) 직후인 10월13일 당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조선노동당을 끝없이 빛내자고 촉구한 이후 처음인데, 이 신문의 편집국논설은 게재 전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신문은 이날 ‘일심단결은 조선의 힘이고 승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영도자가 구상을 펼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돼 영도자의 결심을 결사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일심단결의 정신력만 있으면 우리 앞에 못해낼 일이 없다”면서 “이 세상에 우리 군대와 인민처럼 자기 영도자에게 매혹되어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는 군대와 인민은 없다”고 주장
 - 이어 “김일성 동지의 후손들이라는 자각을 한시도 잊지 말고 싸워나가야 한다”면서 “김일성 동지의 후손이라는 자각을 갖고 살며 투쟁한다는 것은 수령님의 은택을 순간도 잊지 않고, 수령님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몸바쳐 싸운다는 것”이라고 강조

● 北김정일·정은 부자, 군 훈련 참관(10/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실시된 군부대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함.
- 이어 “김정일 동지께서 노동당 창건 65돌에 즈음해 진행된 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보시었다”면서 “군부대들이 튼튼히 준비되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훈련성고를 높이 평가했으며,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을 더 강화발전시키는데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셨다”고 밝힘.
- “훈련이 시작되자 지상포들의 화력 타격과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들의 치밀한 협동에 의해 적진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적집단은 삼시에 소멸됐다”면서 “장병들은 김정일 장군님의 손길 아래 천하무적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했다”고 상황을 설명
-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육탄결사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자라났다”면서 “단련된 이 강철의 정예대오, 무적의 대군을 갖고 있기에 사회주의 조국은 금성철벽이고 조선노동당의 혁명무업은 필승불패”라고 칭찬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지휘성원(지휘관)들, 훈련에 참가한 군부대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덧붙임.
- 조선중앙TV가 추후 보도한 기념사진의 첫째 줄에는, 한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측에 리영호(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군 총참모장),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정은,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순으로 섰고, 좌측에는 최영림(정치국 상무위원 겸 내각 총리), 김기남(당 비서), 최태복(), 김경희(정치국 위원 겸 당 경공업부장), 박도춘(당 비서) 순으로 도열했으며, 2열부터는 군복 차림의 군인들로 채워짐.
-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 부장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과 주규창도 훈련 참관을 수행했고, 그밖에 인민군 지휘성원들, 국방공업 부문 일꾼(간부)들이 함께 지켜봤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北군부대 등 김정은한테 충성결의(10/6,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의 군부대에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다짐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함.
- 매체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량강도의 제25국경경비여단과 함경북도의 제27국경경비여단에서 김정일의 당 총비서 재추대와 김정은의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임명을 경축하는 모임을 열었다”면서 “군관(장교)과 병사들이 ‘김정은 청년장군을 받들어 혁명무업을 끝까지 완



- 성하자'는 구호를 제창했다"고 말함.
- 이어 "이런 충성 다짐 의식이 모든 군부대에서 일제히 열리고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나 기업소 등에서도 곧 열릴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문화성의 소식통으로부터 '김정은의 후계자 추대를 경축하는 공연이 6일 평양시와 각 시·도·군별로 열린다'는 말을 전달 들었다"면서 "공연에서는 대를 이어 '수령복(福)'을 누린다는 내용의 축하연결과 음악 연주, 시 낭독, 무도회 등이 진행된다고 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이어 "당국은 주민들에게 명절 옷차림으로 행사장에 나가 경축 분위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선출됐던 1993년에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다"고 전함.
- **北김정은, 軍훈련 참관 이어 두 번째 공개활동(10/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당 창건 65주년에 즈음해 진행된 은하수 '10월 음악회'를 관람
 - 김정은의 이날 공연 관람은 지난달 28일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면서 후계 구도가 공식화된 이후, 조선중앙통신이 5일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활동에 해당함.
 - 이날 공연 관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겸직)·최영림(내각 총리 겸직)·리영호(군 총참모장 겸직) 세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영춘(인민무력부장)·김국태(당 검열위원회 위원장)·김기남(당 비서 및 부장)·최태복(당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김경희(당부장)·강석주(내각 부총리)·변영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리용무(국방위원회 부위원장)·주상성(인민보안부 부장)·홍석형(당비서) 등 11명의 정치국 위원이 동행
 - 또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김락희·태종수·김평해·우동측·김정각·문경덕과 당 중앙지도기관 간부, 당대표자회 참가자들도 참석
- **北양형섭, 김정은 후계설 확인(10/8, APTN)**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가진 AP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청년 대장'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북한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양 부위원장은 "우리 주민들은 대대로 위대한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우리 주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청년 대장 김정은 동지를 모



실 영예를 얻게 됐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국립연극극장 현지지도(10/9,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동행하고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을 현지지도
- 조선중앙통신은 9일 새벽 수행 인물들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조선중앙TV가 이날 저녁 현지지도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동행 사실이 확인됨.
- 이날 중앙TV를 통해 공개된 노동신문도 1면에 김정은이 동행한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북한 매체들은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김정은의 최초의 공개활동으로 김 위원장과 더불어 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참관(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한 데 이어 은하수 ‘10월 음악회’를 관람(7일 중통 보도)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또 대동강반에 새로 건설된 주택에 새로 입주한 예술인들인 국립연극단 배우 백승란·최금향·김철진과 리지영 단장의 가정을 방문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시 거리들을 살펴보고 10만 세대의 주택 건설을 조기에 끝낼 것을 강조
- 현지지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통리), 리영호(군 총참모장)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당 비서), 최태복(당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강석주(부총리), 주상성(인민보안부장), 홍석형(당비서 겸 계획재정부장),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태종수·김평해·우동측·김정각·김창섭·문경덕 등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밝혔으나 김정은은 거론하지 않음.

● **北, 당창건 65돌 불꽃놀이…김정일부자 불참(10/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경축 ‘축포야회’(불꽃놀이)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전함.
- 통신은 “축포 야회장들인 당 창건기념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바라보이는 대동강변과 만경대지구를 비롯한 수도의 곳곳은 10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할 불꽃 전경을 보기 위해 모여온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며 김기남·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연설했다고 밝힘.
- 통신은 이번 ‘축포야회’에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조선노동당 창건 65돌 중앙경축행사 대표들, 항일혁명투사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장병, 과학·교육·문화예술·보건·출판보도 부문 일꾼, 영웅, 항일혁



명투쟁 연고자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공로자, 근로자들이 관람했다”며 조총련 축하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 축하단과 대표단, 평양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됐다고 보도

- ‘축포야회’는 작년 김일성 주석 생일(4.15) 때 처음 시작돼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한 데다 ‘5.1절’(노동절)과 당창건 64주년 기념일로 이어졌고 올해 김 주석 생일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 이를 김정은은 ‘업적’으로 선전해오고 있음.
 - 통신은 “당 창건기념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상공으로 축포가 연이어 터져 오르며 수도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수놓았다”고 밝히면서 “연설자들은 축포야회가 당의 장구한 역사와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 영광의 축전이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후손답게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공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는 승리의 대화폭이라고 말했다”고 강조
- **김정일·김정은, 아리랑 공연 관람모습 공개(10/10, 교도통신, BBC)**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이 9일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 사절단과 함께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
 -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한 노동당 창설 65주년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전날 밤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아리랑 공연을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관람
 - 체조를 관람하는 김정일 부자의 영상은 전세계에 공개, 김정은은 공연에 앞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중국 공산당 대표단으로 방북 중인 저우융강(周永康)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났으며, 저우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 부자와 동석해 공연을 관람
 - BBC에 방송된 영상에서 김정은은 김 위원장의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 왼쪽으로 한 자리 건너 자리를 잡았으며 김 위원장 부자 사이에는 리영호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군 총참모총장이 앉음. 동석한 저우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의 오른쪽 바로 옆자리에서 공연을 지켜봤으며 김정은의 왼쪽에는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이 앉음.
 - **北김정일, 김정은 부자 금수산기념궁전 참배(10/1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이 10일 자정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전함.
 - 이날 참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군 총참모장)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당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강석주(부총리), 주상성(인민보안부장), 홍석형(당비서 겸 계획재정부장),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



주규창·리태남·태종수·김평해·우동측·김정각·김창섭·문경덕 등이 수행

-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앞서 평양에서 열린 당 창건 65주년 중앙보고대회에도 참석했다고 밝힘.
- 대회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 영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양 부위원장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이 땅위에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라며 “조선노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인류의 자주화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 열병식 주석단에 김정일·정은 나란히(10/10, 조선중앙TV)

- 북한은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면서 이례적으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를 통해 실황으로 중계
- 오전 10시 열병식 주석단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천히 걸어나와 자리를 잡았으며,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
- 주석단에는 화면상으로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리영호(군 총참모장), 김정은, 김영춘(인민부력부장), 리을설(인민군 원수), 리용무(국방위 부위원장), 주상성(인민보안부장)이 서있고 오른쪽으로는 중국 사절단 단장인 저우용강(周永康)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김철만(전 정치국 후보위원),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순으로 자리를 잡음.
- 조선중앙통신도 열병식 시작 직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과 조선인민내무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열병식이 10일 10시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시작돼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 통신은 리영호 군 총참모장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열병식 시작을 알리는 신호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종대를 선두로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종대들과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 근위 제2해군전대를 비롯한 육해공군 부대 종대들 그리고 조선인민내무군 종대들이 장중한 취주악에 맞춰 위풍당당하게 나아갔다”고 소개

● 北 당창건 65주년 열병식 생중계…사상처음(10/10,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군부대 열병식을 열고 그 상황을 사상 처음 TV와 라디오



로 생중계, 조선중앙TV,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예고 없이 오전 9시30분께부터 11시18분까지 1시간48분 동안 열병 준비 상황과 부대 행진을 이어서 중계

- 앞서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가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은 2008년 2월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 2009년 6월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란전, 올해 6월 남아공월드컵 본선 포르투갈전 세 차례뿐이고, 세 차례 모두 TV로만 중계됐음.
- 조선중앙TV가 전한 열병식 화면에는 미사일 탑재 차량, 다연장포 탑재 차량, 탱크, 장갑차 등도 등장했는데, 중앙통신은 “주체식 미사일 및 요격미사일 종합체들이 선군조선의 멸적 의지와 강대성을 시위하며 열병식 마감을 장식했다”고 언급

● 北 열병식에 외신기자단 ‘파격 초청’(10/10, 연합뉴스)

- 북한이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에 외국 언론사를 초청하고 행사를 생중계하는 이례적 조치를 단행
-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일요판 옵서버 인터넷판에 따르면 전날 언론사 취재진 80명 가량이 창건 기념행사의 하나인 군 열병식 취재차 북한에 도착
- 북한은 지난주 초 적대국인 미국 언론사들에 초청장을 보냈고, 취재를 신청한 타국 언론사에도 비자를 발급했다고 옵서버는 보도
- 또한 외국 취재진을 위해 현장에 인터넷 회선이 깔린 프레스센터까지 마련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 CNN 방송은 10일 오전 조선중앙TV의 열병식 생중계 영상을 방송하면서, 열병식장인 평양 김일성광장에 나가 있는 자사 기자를 연결했다. 요르단과 아랍권 위성 보도채널 알-자지라도 열병식 장면을 동영상으로 내보냄.
- 미국의 공영라디오방송(NPR)의 루이자 림은 평양발 보도에서 누구도 ‘은둔의 왕국’인 북한이 외국 기자들에게 실제로 문을 열지 예상치 못했다면서 파격적인 방북 허가에 놀라움을 표했으며 비자는 제때 나왔고 심지어 북한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 북한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기자들에게도 비자가 발급됐다고 전함. 이들은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향하면서 경음악 동영상과 함께 신문 등 읽을거리를 받았다고 함.

● 北 권력기관들, 김정일에 ‘국방중시’ 충성 서약(10/10,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 같은 권력기관들이 공동 작성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출한 당 창건 65주년 축하문에서 “군사 중시, 국방 중시를 국사 중 제일 국사로 삼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이 축하문은 “모든 일꾼, 당원, 근로자들은 군사 중시, 국방 중시를 국사 중 제일 국사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강화하



며,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최우선적 힘을 넣겠다”면서 “아울러 김일성 동지를 당과 혁명의 수령으로 영원히 모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지침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당과 조국을 김일성 동지의 당, 김일성 동지의 조선으로 빛내 수령님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하겠다”고 서약

- 축하문은 또 “100년 전 화승대(초기 소총)조차 변변히 없어 외세에 국권을 빼앗겼던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지위에 올라선 것은 선군정치가 안아온 민족사적 대승리”라고 주장
- 이와 별도로 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북한을 찾은 해외동포 대표단도 “김정일 장군님을 총비서로 추대하고 김정은 동지를 부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크나큰 감격”이라는 요지의 축하문을 김 위원장한테 올렸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北김정일, 저우융캉 中공산당 상무위원 면담(10/10, 신화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9일 방북한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당서열 9위)를 만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축하편지를 전달받았다고 전함.
- 김정은은 이날 면담에 배석함으로써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진 뒤 처음으로 외교무대에 공식 등장,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친절한 축하편지를 보내오는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호금도 동지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주영강과 담화하셨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중국 공산당과 후진타오 총서기가 저우융캉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준 것은 조선 혁명 사업에 큰 격려가 된다”고 말했으며, 저우 상무위원은 “김정일 총서기를 수반으로 하는 새 영도집단의 지도 하에 조선 인민들이 더욱 밝은 미래를 창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함.
- 면담에는 중국 측에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쑤정차이(孫政才) 지린(吉林)성 당 서기,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 대사가, 북 측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최영림 내각 총리, 이영호 총참모장,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이 배석

● 北당창건 夜會도 생중계…김정일부자 참석(10/10,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10일 오전 열병식에 이어 이날 밤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경축야회(夜會) ‘번영하라 노동당시대’를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을 통해 오후 7시20분부터 8시25분까지 약 1시간5분간 생중계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전 열병식에 이어 오후 야회에도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고 김일성광장에 모여 있던 북한주민들은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지름.
-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위원장은 서늘한 10월 밤 공기를 감안한 듯 밤색의 두툼한 외투를 입었고, 김정은은 열병식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우측 편으로 리영호 군 총참모장에 이어 섰음.
- 또 주석단에는 저우융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도 모습을 드러냄.
- 김기남 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은 야회 시작에 앞선 연설에서 “오늘의 대경축 야회는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 주시려는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구상과 세심한 지도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함.
- 이날 야회는 1장 ‘김일성동지의 당’, 2장 ‘수령님 염원 꽃피는 강산’, 3장 ‘당은 승리의 향도자’, 종장 ‘장군님따라 천만리’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학생과 노동자들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처럼 군무를 쳤으며 광장 주변에서는 ‘카드섹션’을 통해 날아가는 새 등을 형상화하기도 함.
- 통신은 “하늘가에 형형색색의 축포가 터져 오르고 화려한 춤 물결이 설레는 광장에 ‘경축 65’, ‘영광’의 글발이 새겨졌고 불장식배, 돛배들이 오가는 대동강은 황홀경을 이뤘다”고 소개

■ 김정일동향

- 10/ 5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 참관(10/5, 중통·중방)
 -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총참모장), 김정은(黨중앙군사궐 부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黨비서), 김경희·장성택(黨부장), 김정각(軍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도춘(黨비서), 주규창(黨부장) 등 동행
- 10/ 7 김정일, 은하수 ‘10월 음악회’ 관람 및 「감사」전달(10/7, 중통)
 - 김영남·최영림·리영호(黨중앙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김정은(黨중앙군사궐 부위원장), 김영춘·김국태·김기남·최태복·양형섭·김경희·강석주·변영립·리용무·주상성·홍석형(黨중앙궐 정치국 위원들),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김락희·태종수·김평해·우동측·김정각·문경덕(黨중앙궐 정치국 후보위원들) 및 黨중앙궐 지도기관 성원들과 黨대표자회 참가자들 동행 관람
- 10/ 9 김정일, 국립연극극장 현지지도(10/9, 중통·중방)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군 총참모장)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당비서), 최태복(당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 위 부위원장),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강석주(부총리), 주상성(인민보안부장), 홍석형(당비서 겸 계획재정부장),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



- 리태남·태중수·김평해·우동축·김정각·김창섭·문경덕 등이 수행
- 10/ 9 김정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아리랑’공연 관람(10/10, 교도통신)
- 북한을 방문중인 중국 사절단과 동행
- 10/ 9 김정일, 당 창건 65주년 중앙보고대회 참석(10/10, 중통·중방)
- 10/10 김정일, 금수산기념궁전 참배(10/10, 중통)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군총참모장)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당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강석주(부총리), 주상성(인민보안부장), 홍석형(당비서 겸 계획재정부장),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태중수·김평해·우동축·김정각·김창섭·문경덕 등이 수행
- 10/10 김정일, 당창건 65주년 열병식 참석(10/10, 중통·중방)
- 10/10 김정일, 당창건 경축야회(夜會) 참석(10/10, 중통·중방)

■ 김정은동향

- 10/ 5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 참관(10/5, 중통·중방)
- 10/ 7 김정은, 은하수 ‘10월 음악회’ 관람 및 「감사」전달(10/7, 중통)
- 10/ 9 김정은, 국립연극극장 현지지도(10/9, 중통·중방)
- 10/ 9 김정은,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아리랑’공연 관람(10/10, 교도통신)
- 10/ 9 김정은, 당 창건 65주년 중앙보고대회 참석(10/10, 중통·중방)
- 10/10 김정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10/10, 중통)
- 10/10 김정은, 당창건 65주년 열병식 참석(10/10, 중통·중방)
- 10/10 김정은, 당창건 경축야회(夜會) 참석(10/10, 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黨창건 65돌 즈음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제일 국력이자 무기”라며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라고 강조(10/4, 중방·노동신문)
- 김정일 黨총비서 再추대 축하 함경남도·남포시 경축대회 진행(10/4, 중통)
- 黨대표자회 참가자들, 평양과 지방의 여러 곳 참관(10/4, 중통)
- 北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30돌 기념보고회,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 노두철(내각부총리),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등 참가下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0/5, 중통)
- 김정일의 黨총비서 再추대에 대한 그간 “黨 강화발전 업적” 칭송 및 畝民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 나가자”고 독려(10/6, 평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0/4 모범적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등 수여함에 대한 정령 1106호 발표(10/8, 중방)



나. 경제

■ 기타 (대내 경제)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주체철 생산체계 새롭게 확립하고 철생산 정상화 실현(10/7, 중통)

다. 군사

- 北, 미얀마 통해 첨단 군사장비 수입(10/6,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첨단 군사장비를 들여오면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미얀마를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 ‘핵과학자회보’(BAS)는 지난 달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과 미얀마 간 핵협력에 관한 분석기사에서 “최근 미얀마 군사정부가 구매한 첨단 군사장비는 미얀마의 현재 과학기술 능력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라면서 “이 장비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이어 “미얀마는 북한보다 덜 고립돼 있고 불법 밀매조직의 활동도 왕성해, 일본 등에서 무기 관련 장비를 수입해 북한으로 보내기에 수월한 나라”라면서 “최근 들어 북한과 미얀마 간 외교·군사 관계가 다시 밀접해지고 왕래도 늘어나, 북한행 항공기에 이런 군사장비를 실어 보내면 막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임.
 - 또한 이 잡지는 “북한이 아예 미얀마에 무기 공장을 차려 미사일과 핵무기의 성능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얀마 군사정부는 북한에 장소를 제공하고, 북한은 미얀마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식의 거래도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
- 北, ‘신형 축포개발’ 선전(10/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CNC(컴퓨터제어)기술로 신형 축포와 발사장치를 개발했다고 선전해 주목
 - 통신은 “100여 종에 달하는 새 축포가 개발됐다”면서 “모의발사와 실제발사의 완전한 일치를 담보하는 CNC 축포 사격체계가 확립되고, 급변하는 대기환경 속에서도 발사를 담보하는 발사조종장치도 개발됐다”고 전함.
 - 통신은 또 “프로그램과 조종장치 기술이 100% 조선의 것이고, 축포탄, 도화선, 화약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도 조선식으로 돼 있다”면서 “시험발사를 통해 과학기술적 성과가 입증된 새 축포를 조선의 뜻깊은 경축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당창건 기념일에 ‘축포야회’(불꽃놀이)를 벌일 것임을 시사



라. 사회·문화

● 北당창건 65돌, 주민들에 생필품 특별공급(10/5,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노동당이 당창건 65주년(10월10일)을 맞아 1990년대 중반 이후 최대 규모로 주민들에게 ‘명절상품’을 싸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
- 또한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 “당 조직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오는 10일 당창건일에 명절상품을 대대적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의 당 간부들이 상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말함.
- 량강도 소식통은 “당창건 65주년을 맞아 국가상업망(국영상점과 식당)을 통해 명절 공급을 잘 하라는 지시가 벌써 4번이나 내려왔다”면서 “지난달 30일 지시문에는 세대별로 술 한 병, 기름 500g, 돼지고기 1kg, 치약·칫솔, 세숫비누·빨래비누 각 1장, 속옷, 양말·신발 각 한 켤레를 무조건 공급하고, 모든 국영식당이 10일 하루 동안 국정가격(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함)으로 술과 음식을 팔도록 돼 있다”고 방송에 전함.
- 또한 “지방의 외화벌이 기관들이 명절상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갖고 있는 외화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중국 거래처에 사정해 외상으로 들여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임.

● 北대학생들, 안재욱 노래 부르다 처벌(10/7,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지난달 하순 노동당 대표자회 직후 농촌지원을 나갔던 북한 대학생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합창하다 적발돼 사상비판을 받았다고 보도
- 이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시 소식통을 인용, “최근 청진시 제1사범대학 혁명역사학부 학생들이 남한 가수 안재욱의 ‘친구’를 부르다가 도보위부 간부에게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면서 “‘친구’는 청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전함.
- 소식통은 이어 “대학생들은 함경북도 경성군 오상리로 농촌지원을 나갔는데 잠시 쉴 때 누군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합창으로 번졌다”며 “보위부 간부가 처음에는 농장원을 보내 제지했지만 농장원의 훈시에 반발한 학생들이 더 크게 노래를 불러 일이 커졌다”고 설명
- 또한 함경북도 회령시의 ‘대학생 소식통’은 이 방송에 “(청진제1사범대학의) 학부장과 강좌장들까지 보위부 조사를 받았고, 학생 간부들도 매일 사상투쟁회에 회부돼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시점이 당 대표자회 직후이기 때문인지 이 사건으로 함경북도 내 모든 대학들이 검열을 받게 됐다”고 전함.



- 이 대학생은 “안재욱의 ‘친구’뿐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으로’(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지칭) 같은 노래도 주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당과 수령을 떠난 순수한 우정, 조국과 혁명을 떠난 사랑 등을 모두 부정하며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노인후원기금 설립(10/7, 조선신보)

- 신보는 “조선(북한)에서 연로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문화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연로자 후원기금’이 새로 설립됐다”면서 “연로자 보호기관이 조성하는 자금과 국제기구, 자선단체, 해외동포들이 기증하는 자선자금을 적립해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함.
- 북한은 과거에도 ‘조선교육후원기금’(2005년 1월), ‘자연환경보호기금’(2005년 3월), ‘조선체육후원기금’(2006년 4월) 등을 설립해 조총련 등 해외 동포와 관련 단체로부터 외화를 모금했음.
- 이와 관련 신보는 2008년 말 “30여개 국가의 단체와 인사가 ‘조선교육후원기금’ 후원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모아진 자금으로 교사(校舍)와 기숙사 건설 및 개보수, 교육설비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北, 주민들 세습비판 차단에 안간힘(10/8,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의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북한 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과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함경북도 청진시의 소식통은 이 방송에 “당대표자회 이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새끼돼지 어미돼지 모조리 잡아먹자’는 낙서가 발견돼 큰 소동이 벌어졌다”면서 “평성 장마당에는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을 비방하는 전단이 붙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당국이 이런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을 신고하면 신변을 보장하고 크게 표창한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인민반 회의에서는, 올해 청진시에서만 신고를 열심히 한 주민 5명이 ‘천연색텔레비전’(컬러TV)를 받았고, 8명은 10만원 이상의 상금을 받았다고 선전하기도 했다”고 덧붙임.
- 평안북도 신의주시 소식통도 “비판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연회, 인민반 회의, ‘지방3방송’(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 방송) 등 모든 선전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함경북도 청진시, 자강도 만포시 등의 강연회에서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린 ‘불순분자’들이 공화국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함.
- 신의주 소식통은 이어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이 우리 내부에 불순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교양을 들었다”고 말했고, 청진시 소식통도 “인민반회의에서 ‘남한 안기부(국정원)의 돈을 받은 반동분자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이들을 잡아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방송에 전함.



- **北유도 계순희 은퇴(10/8, NHK)**
 - 북한 유도 스타 계순희(31)가 은퇴했다고 NHK가 8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조선통신을 인용해 보도
 - 조선통신은 계순희가 현재 “(유도 코치인 남편 김 철과 함께) 국제 대회에서 자신들의 뒤를 이어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

- **北도 배추 파동…중국산 수입은 적어(10/9,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올 여름 수해와 고르지 못한 날씨로 배추 농사에 큰 타격을 입어 배추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함.
 - 이 방송은 중국 단둥으로 이주해 북한을 상대로 교역하는 화교 장모씨의 언급을 인용, “북한도 올해 배추 농사가 크게 흉작이지만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추가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다”면서 “배추 살 돈이 있으면 더 급한 식량을 구입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함.
 - 장씨는 또 “한번에 2~3t 규모로 중국산 배추가 북한으로 나가는 해도 이는 각 ‘기업소’(국영기업)가 운영하는 간부용 식당에 공급하는 것이지 일반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임.
 - 북한 거주경험이 있는 다른 화교 류모씨도 ‘북한이 배추 파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배추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수두룩한데 남새(채소) 부족을 신경쓰겠느냐”면서 “모르긴 해도 중앙(당국)에서 혁명정신으로 자력갱생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쇼팽(뽀스카음악가)’ 생일 200돌 관련 사진전시회 개막식, 전영진(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참가下 평양대외문화교류센터에서 진행(10/4, 중통·평방)
- 北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도서 ‘수령님과 혁명전우들’ 새로 출판(10/4, 중통)
- 北 평양출판사, 도서 ‘옛 지도로 보는 독도’ 새로 출판(10/5, 중통)

2. 대외정세

- **北기업, 중국내 남한기업 상대 수주 활동(10/7,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남한 정부의 제재조치로 일감이 떨어진 북한 ‘기업소’들이 중국 내 남한 기업에 은밀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 선양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국인 조모씨는 RFA에 “최근 조선족 사업가로부터 ‘물량의 일부를 북한에서 제조할 생각이 있느냐, 북한 기업소 사람이 나와 있으니 원하면 직접 상담할 수 있다’는



- 제의를 받았다”고 말함.
- 북한에 산 적이 있는 화교 윤모(현 중국 선양 거주)씨도 “북한의 친척이 만든 가발 반제품을 중국 칭다오에 있는 남한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고 이 방송에 밝힘.
 -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측 기업소들이 중국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을 보내 남한 기업들을 상대로 은밀히 일감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남한 정부의 제재조치로 북한 기업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함.
 - RFA는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으로부터 주문이 끊긴 북측 기업소들이 중국의 남한 기업들을 상대로 수주 활동을 벌이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면서 “북측 기업소들은 중국 기업을 중간에 내세워, 반제품은 북한에서 만들고 완제품은 중국에서 만드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고 설명

■ 기타 (대외 일반)

- 「제6차 北-美 군부 대좌급 실무접촉」, 판문점에서 진행(10/5, 중통·중방)
- 中 공산당 대표단(‘주영강’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10/9~13 訪北 예정(10/6, 중통)
- 일본의 「2010년 방위백서」, 독도 自國영토 표기는 “재침야망이 실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持續 비난(10/5, 평방)
- ‘게르하르트 티데만’ 駐北 독일대사, 국경절 즈음 궁석웅(외무성 부상), 오룡철(무역성 부상) 등 초청下 연회 개최(10/5, 중통)
- 北-中 외교관계 수립(1949.10.6) 61돌 즈음 兩國 관계를 “불패의 친선관계”라며 “조-중 친선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力說(10/6, 중방)
- 駐北 이집트 武官, ‘군대절’ 즈음 北 軍장령·군관 및 駐北 각국 대사관 武官 등 초청下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개최(10/6, 중통)
-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일행과 몽골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대표단 및 방글라데시 주체사상연구소 대표단, 北 당창건 65돌 경축행사 참석차 각각 평양 도착(10/6, 중통)
- 평양예술단, 중국 절강성·강소성·광둥성의 여러 도시들에서 공연(10/8, 중통)
- 제4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9/20~21),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돌 즈음 중국에서 진행(10/8, 중통)
- 北적십자회 대표단(단장: 백용호 부위원장), 제7차 亞-太지역 적십자대회 참가차 요르단 향발(10/7, 평방)

3. 대남정세

- 南北, 상봉후보 각 200명 생사확인 착수(10/5, 연합뉴스)
 - 오는 30일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남북 양측의 적십자사가 상봉 후보자 각 200명에 대한 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



-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 이하 한적)는 5일 오전 우리 측 상봉 후보자 200명과 이들이 만나려는 북측 가족, 친척의 인적 사항이 담긴 생사확인 의뢰서를 개성공업지구 내 북측 통행검사소를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 측에 전달하고 북측의 의뢰서도 받았다고 밝힘.
- 북측이 보내온 생사확인 의뢰자 명단과 인적사항은 대한적십자사(www.redcross.or.kr)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reunion.unikorea.go.kr)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덧붙임.

● 北매체, 김태영 국방 발언·PSI 훈련 비난(10/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 지역 내 라디오 살포 계획’ 발언을 “대화 분위기를 깨는 호전적인 폭언”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북 심리전의 시행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함.
- 민주조선은 기명 논평에서 “‘대북 심리전’ 운운한 것은 민심에 도전하는 역적행위이자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 인민군대는 대북 심리전 재개시도에 직접 조준격파를 포함해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했고 이는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
- 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때는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고 대북전단을 즉시 살포할 계획”이라면서 “북한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를 살포하는 작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음.
- 또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우리 군 주관으로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될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이라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 검문, 납치행위를 감행할 경우 전면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임.

● 황장엽, 자택서 사망…심장마비 추정(10/10, 연합뉴스)

- 황장엽(87)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1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경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좌욕을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황씨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보안요원이 들어가 보니 황씨가 숨져 있었음.
- 황씨는 국정원 요원에 의해 특급 경호를 받아왔으며 이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황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고 별다른 사인이 없는 것으로 미뤄 심장마비 등으로 숨졌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할 계획
- 1923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황씨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거쳐 1949년



모스크바종합대학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공부했고, 1954년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김일성 사상을 주체사상으로 집대성함해 ‘주체사상의 대부’로 불리었으며 1970년 당중앙위원, 1980년 당비서, 1984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87년 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등을 역임함.

■ 기타 (대남)

- 도라산역 주변 통일 벽화 철거 및 관련시설물 관리 소홀은 “반통일적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시비(10/5, 평방)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캠벨 “남북관계 진전이 선행요건”(10/7)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7일 대북 정책기조와 관련,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며 “우리는 남북간에 대화와 포용의 신호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런 과정이 계속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회동한 직후 도어스텝(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그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에 대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요건”이라며 “우리는 그와 동시에 북한이 2005년 비핵화 약속을 분명하고도 설득력있게 이행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인 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것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 회동에서 캠벨 차관보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대회 이후 김정은 권력 세습 구도와 관련한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기조에 있어서 공통된 평가와 보조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캠벨 차관보는 또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만나 북한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김재신 차관보는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비롯한 양자 현안과 아프간 문제 등 주요 국제이슈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히고,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의제조율 ▲북한 정세와 한·중·일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아프간과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2+2’(외교·국방장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차관보급 ‘2+2’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미국측에서 캠벨 차관보와 월레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한국측에서 김 차관보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여해 주요 동맹현안과 한반도 주변정세, 지역·범세계적 문제 등 주요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 원자바오 “6자회담 조기 재개 희망”(10/6)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희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음. 원 총리는 제8차 아셈(ASEM.아시아-유럽미팅) 정상회의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모든 유관국들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원 총리가 “모든 유관국들의 근본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 원 총리는 아울러 다음달 11~12일로 예정된 G20 서울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회복을 진작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이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돕겠다는 입장을 표시했음.

● <北 ‘영변 활동’에 美전문가 분석 구구>(10/5)

-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 부지 인근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최근 인공위성 사진 판독에서 밝혀진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음. 북한의 ‘수상한’ 활동을 처음 공개한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활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플루토늄을 확충하기 위한 북한의 활동일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전했다.
- 국무부의 북한 담당관으로 일했던 조엘 위트는 북한의 행동이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음. 이와 관련, WP는 북한이 영변 시설이 항상 정찰위성과 상업위성의 감시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너슨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무슨 일이 (영변에서) 일어나는지는 결코 명확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영변에서 이뤄지는 어떤 새로운 공사도 좋은 일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음. 그는 영변에서의 활동 재개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 군부를 위한 보상 패키지일 수 있다”고 추정했음.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위트 전 북한담당관은 “북한이 핵 무기고를 강화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앞서 ISIS는 지난달 말 북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부지 주변을 찍은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2008년 폭파·해체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부지에서 대규모 굴착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음.



● 스티븐스 “북·미관계 정상화위해 北비핵화 필요”(10/5)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5일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과 미래기획위원회가 ‘21세기 핵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청중과 질의응답을 통해 “미국은 그동안 협상을 통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또 “2005년 9월(에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논의했고 정권보장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2012년 한국에서 열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기다리면서 북한 지도부에게 많은 자극과 독려가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이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돌아오고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과 이란의 지도부에게 진정한 안보는 핵무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NHK방송이 독일 외무성의 기밀문서를 인용해 일본이 1960년대 후반 핵무기 보유를 검토했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그런 문서를 본적이 없고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 천영우 “北 비핵화 결단에 중국 역할 중요”(10/5)

-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5일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며 국제사회가 동일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천 차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1세기 핵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공동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지도부가 핵에 매달리는 것이 체제의 종말을 재촉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할 때 핵포기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회의론이 대세를 이루지만 나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핵 불포기로 지불해야 할 대가에 달려있고 본다”고 말했다.
- 그는 “안보리 제재와 이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취하는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북 수교를 통한 안전보장과 함께 북한 경제의 회생에 필요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천 차관은 또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6자 회담이 재개돼도 비핵화 목표달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할 실마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음.
 - 그는 “핵개발을 추구하는 개별국가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규범적으로는 북한과 같이 NPT를 탈퇴한 경우 안보리의 특별입법 기능을 통해 강력한 비핵규범 속에 다시 묶어두고 이를 토대로 외교와 제재 수단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아울러 그는 “평화적 원자력 활동을 가장해 실제로는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고 때가 되면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NPT는 속수무책이었다”며 “NPT체제만으로는 21세기의 핵확산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규범적 접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핵무기 활동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존 케이브스 미국 국방대 교수는 이날 오후 ‘NPT 체제와 아웃라이어 국가들’ 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재와 압박은 유인책과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그는 “특히 6자회담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나머지 5개국도 북한을 다루는데 유용한 수단”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중국이 북한의 붕괴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
- “北, 핵포기 행동으로 보여야 6자회담 개최 효과”(10/5)
- 벨기에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 “6자 회담이 열리기 전에 당사자인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만 이 (6자)회담을 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업무오찬(지역정세 세션)에서 “말로 하는 회담은 길어지고 그동안에 핵무기는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 6자 회담이라는 기구를 통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왔으나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핵실험은 2번이나 일어났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핵 포기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특히 ASEM 회원국들이, 북한이 그런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나와 정말 핵을 포기하고 세계와 더불어 개방된 사회에서 협력을 받아 북한 경제가 살아나게 하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최소한 행복 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면서 “북한이 하루속히 우리 세계와 더불어 협력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의 행복을 찾아주는 이런 일에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음.
- 이밖에 이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언급, “이웃 나라 뿐 아니라 먼 나라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 국가가 모두, 세계가 힘을 합쳐서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수개월 내 북한과 대화 기대” <WSJ>(10/9)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내년 1월까지 북한과 양자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WSJ에 따르면 이 관리들은 미국의 이 같은 낙관이 천안함 사태 후 최근 남북한 긴장완화 움직임에 바탕한 것이라며 미 국무부는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언질도 받았다고 밝혔음.
- 미국과 아시아 관리들은 또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권력승계 계획 이행에 성공하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지를 굳혔다고 관측했음.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한 미국 고위 관리들은 WSJ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개월 내 북한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자회담 후 6자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음.
- 미국 관리들은 자국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북 협상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미국이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긴장을 고려, 한국이 확실히 허가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몇 주간 민간 및 첩보 위성들이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건설 활동이 재개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음.
- 한 관리들은 7일 인터뷰에서 “영변에서 활동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로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 미국의 민간 핵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2008년 해체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부근에서 대규모 굴착 공사를 하고 있다고 관측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피해왔음. WSJ가 전한 미국 관리의 발언은 영변 핵시설에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한 것임.
- 두 명의 미국 관리들은 또 북한과 접촉이 이뤄질 경우 미국은 핵 관련 활동 재개에 대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위 관리



는 “우리가 협상 모드로 돌아가자마자 이(북한 핵 활동)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북한의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는 8일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대북 위협의 수위를 계속 높이면 ‘핵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음. 통신에 의하면 신 대사는 미국이 지난 4월 ‘핵테세 검토(NPR)’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의 길을 텃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 목록과 핵 선제공격 목표에 넣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 같다고 비난했음.
- 신 대사는 이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펴고 핵위협을 강화할수록 자위적 억제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 침몰 사건이 미국의 날조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전쟁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美 “北 행동에 과도한 해석 않겠다”(10/9)

-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8일 최근 남북한 사이에 개선의 신호가 보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한 가지 행동을 과도하게 해석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 토너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개방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역내에서 좀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면서 “제발 북한이 그런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또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후계세습을 북한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와 국제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이 실험실 단계를 넘어섰다는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한 채 비핵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 중·북 관계

● 北김정일, 저우용캉 中공산당 상무위원 면담(10/10)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9일 방북한 저우용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당서열 9위)를 만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축하편지를 전달받았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이 10일 전했다. 김정은은 이날 면담에 배석함으로써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진 뒤 처음으로 외교무대에 공식 등장했음.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친절한 축하편지를 보내오는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 호금도 동지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주영강과 담화하셨다”고 밝혔음.
-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중국 공산당과 후진타오 총서기가 저우융캉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 준 것은 조선 혁명 사업에 큰 격려가 된다”고 말했으며, 저우 상무위원은 “김정일 총서기를 수반으로 하는 새 영도집단의 지도 하에 조선 인민들이 더욱 밝은 미래를 창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음.
 - 면담에는 중국 측에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쑨정차이(孫政才) 지린(吉林)성 당 서기,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 대사가, 북 측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최영림 내각 총리, 이영호 총참모장,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음. 중앙통신 기사는 김정은의 배석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신화통신은 김정은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기사에서 명기했고 CCTV도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해 대조를 이뤘음. 중국 CCTV 보도 화면을 보면 김정은은 김 위원장과 저우 상무위원 건너편에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나란히 앉았으며, 저우 상무위원은 이날 회담 시작 전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했음.

● <中언론 “김정은 누구냐”..집중조명>(10/10)

- 서방 언론과 달리 지금껏 북한의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해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일관하던 중국 언론들이 북한 당 창건일을 계기로 김정은을 본격적으로 띄우고 있음. 신경보(新京報)는 10일 “80년대생 김정은, 정치 무대서 급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의 면면과 영도자 등극 과정을 소개했음.
- 이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막내아들인 김정은은 바깥에 이름이 ‘正雲’, ‘正銀’으로 잘못 알려질 정도로 신비한 인물이었다면서 서방 언론을 인용해 그가 1983년 1월 8일 김 위원장과 고영희 사이에 태어났다고 전했다. 신경보는 한국 내 전문가 등의 말을 인용하며 김정은을 비교적 강인한 성격이며 세세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인물로 묘사했음. 신문은 김정은이 지난달 28일 전격적으로 인민군 대장에 임명된 직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에 단숨에 올랐으며 이를 육상 종목인 ‘세단뛰기’에 비유했음.
- 그러나 김정은이 북한을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신경보는 소개했음. 일각에서는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보내며 서방 세계 사정에 밝은 김정은이 개혁개방의 조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치는 반면, 중국 공산당 교의 장런구이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은 아직 후계자일 뿐이며 큰 정책은 김 위원장이 결정하고 있어 대외 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이날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북한 정부가 처음으로 김정은이 김 위원



장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음.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 등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양형섭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아들이며 북한의 세 번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中전문가 “北 열병식, 선군정치 계승 의미”>(10/10)

- 북한이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하며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선군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음.
- 군사평론가 마딩성(馬鼎盛)은 홍콩 봉황TV에 출연해 “시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 후계 문제와 밀접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고 형식적으로는 열병식을 통해 선군정치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음.
- 마딩성은 또한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군사력으로 국내외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과 남한에 큰 위협으로 거론되는 장사정포가 등장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음.
- 중국중앙인민라디오방송(中國人民廣播電臺.CNR) 국제뉴스 편집인인 싱치자(邢斯嘉)는 자사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이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한 것은 이 기회를 빌려 김정은 후계를 축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과 함께 열병식에 참석한 것으로 볼 때 오늘 열병식의 중점은 바로 부자간의 (권력) 승계에 있다”고 짚었음.
- 싱 편집인은 이어 “북한이 열병식에서 각종 무기류를 과시하고 이를 외국 기자들에게 개방한 것은 북한의 자신감을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앞으로 김정일의 북한이 선군정치를 견지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했음. 한편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음. 신화통신은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축하하려고 방북한 저우융캉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관람했다고 전했다.
- 저우 상무위원은 전날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기 직전 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 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들과 간략한 회견을 하고 당 창건 기념일을 축하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저우 상무위원은 이날 열병식 시작 전에도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환담을 했음.

● 中매체 “北, 김정은 후계확인” 크게 보도(10/10)

-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북한 정부가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金正恩)이 북한의 세번째 지도자 신분임을 공개했다



- 고 10일 일제히 보도했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인터넷사이트인 인민망은 조선중앙TV를 인용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이 8일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아들이라고 확인하면서 장래에 북한의 세 번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 인민망은 김정은이 지난달 27일 조선인민군 대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다음 날인 28일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소개했음. 인민망은 그러면서 “북한의 제3대 지도자 신비의 베일을 벗기다” “가장 평범하지 않은 ‘바링허우(80後, 80년대 출생자)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음.
 - 관영 신화통신도 양형섭 부위원장이 김정은 후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인민망과 동일한 기사를 타전했음.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와 중국 내 여타 매체들도 대부분 신화통신의 기사를 인용해 김정은 후계 공식 확인 소식을 전했다.
 - 앞서 APTN은 지난 8일 양형섭 부위원장과 의 평양 인터뷰에서 ‘청년대장’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북한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음. 양 부위원장은 “우리 주민들은 대대로 위대한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주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청년 대장 김정은 동지를 모실 영예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고 APTN은 전했다. 북한은 9일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평양의 5.1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했음. 이 공연은 북한 노동당 창설 65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중국 사절단도 함께 관람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0시에 김정은이 고(故)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전했다.
- 후진타오 “북중우호 대대로 전해야”(10/9)
-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하루 앞둔 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중조(북중) 우의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이날 북한 노동당 65주년에 즈음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진심으로 조선(북한)노동당의 부단한 발전을 축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 후 주석은 “우리는 좋은 이웃이자 친밀한 동지, 성실한 친구로서 조선 인민들이 김정일 총서기를 수반으로 노동당의 영도 아래 강성 국가를 건설하는 역사에서 부단한 성취를 이룰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중국과 북한이 공통의 노력하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켰다면서 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 방침으로 중국은 북중 간의 전통적 우의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음.

- 후 주석은 김 위원장의 5월 방중 때 “양국 우호 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해야 한다”라고, 8월 방중 때는 “중조 친선을 대를 이어 전해가는 것은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번의 언급은 앞선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됨.
-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도 전날 베이징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노동당 창당 65주년 축하 연회에 참석해 “북한 노동당의 새 지도체제와 함께 협력 정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음. 한편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저우융강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중조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음.
- 신화통신은 체결 소식만 언급했을 뿐 협정의 내용을 상세히 전하지 않았으나 북한과 중국 사이의 대규모 경협 및 경제·기술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커 주목됨.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듯 저우 상무위원은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현황을 소개했고, 김영남 위원장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 성과와 사회 안정은 중국 공산당의 노선이 옳았음을 완전히 증명하고 있다고 화답했음.
- 아울러 저우 상무위원은 북한의 당 창건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북중 우호 관계는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친히 이룬 귀중한 공통 자산이라며 쌍방이 고위층 교류를 빈번히 갖는 한편 전략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음. 김영남 위원장은 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중국이 저우 상무위원과 같은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 것은 중국이 북중 간 전통적 우의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中공산당 ‘공안총책’ 저우융강 방북(10/9)

- 중국 공산당의 서열 9위로 공안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저우융강(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9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해 조선을 공식 친선방문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 서기인 주영강을 단장으로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9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저우 상무위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북한 당대표자회 이후 방북하는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로 오는 11일까지 북한에 머물 예정이다.
- 대표단에는 중국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비롯해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하순 방북했던 지린(吉林)성의 쑤정차이(孫政才) 서기, 구원평 중앙외사판공실 부주임, 장지곤 외교부 부부장, 진곤 상무부 부부장, 진위 랴오닝성 부서기, 두오신 헤이룽장성



부서기 등 고위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음.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또 비행장에서 대표단을 맞이한 북측 인사로 김영일 당 국제담당 비서 겸 국제부장과 주영식 자강도 당 책임비서, 김성남 당 부부장, 김성기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등을 언급했음.

- 중앙통신은 별도 기사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중국공산당 대표단을 만난데 이어, 당 중앙위원회에서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저우융캉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이날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중조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 시진핑 “北 새 체제와 우호협력할 것”(10/9)

-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8일 “북한 노동당의 새 지도체제와 함께 전통을 잇고 미래로 향하고 선린우호하고 협력의 정신을 강화해 중국과 북한의 우호협력관계를 진일보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음.
- 시 부주석은 이날 베이징의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노동당 창당 65주년 경축연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설에서 “우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대신해 최근 북한에서 노동당 대표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시 부주석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65년간 고(故) 김일성 주석이 손수 만든 노동당의 영도속에서 조선 인민의 피어린 투쟁으로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민정권을 공고히 하면서 국가 주권과 존엄을 지켜왔다”고 치하했음.
- 그는 아울러 “김정일 총서기가 고 김일성 주석의 유지를 계승해 조선인민의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길로 이끌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일 총서기를 필두로 한 노동당 새 지도부의 영도로 조선인민이 반드시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생을 개선하고 자주·평화통일, 그리고 대외 관계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신뢰를 보낸다”고 말했다.
- 시 부주석은 북중 관계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여러 지도자들과 양국민의 공동노력으로 우호협력관계가 부단히 발전해왔으며 지역 평화안정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들어 김정일 총서기가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후 주석과 북중 관계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하고 중요한 공동인식에 도달하는 등 양국 우호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음.

● “中대북지원, 연간 3억~4억 달러 추정”(10/5)

- 중국이 한해 북한에 제공하는 무상원조 규모가 3억~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외교통상부는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원회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무상원조 지원국”이라며 이 같은 추정치를 밝혔다. 외교부는 또 북·중간 교역액이 2006년 16.99억 달러, 2007년 19.76 달러에 이어 2008년 27.92억 달러, 작년 26.80억 달러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작년 기준으로 72.8% 안팎에 이른다”고 말했다.

● “北김정은, 김정일 두 차례 방중 모두 동행”(10/4)

-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두 차례 중국 방문 때 모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8월 방중은 물론 5월 방중 때도 아버지 김 위원장을 따라 중국에 다녀왔으나 북중 정상회담 등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김정은은 또 공식 수행원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경호원으로 위장하고 이름도 ‘김정’이라는 가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양복 차림을 하고 경호원처럼 행동하면서 김 위원장을 곁에서 지키는 모양새를 갖췄다”면서 “앞으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전대 수령’(김정일)에 대한 김정은의 충성심을 선전하는 사례로 많이 인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도 1959년 김일성 주석의 러시아 방문과 1965년 인도네시아 방문 때 동행해 김 주석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사, 간호사, 부관 등을 불러 모아 놓고 일일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난 8월 방중 때는 김정은의 친형 정철도 동행해 김정은과 함께 김 위원장을 따라 지린시 육문중학교 등 ‘김일성 혁명사적지’를 둘러봤다고 설명했다.
- 이 소식통은 이어 “8월 방중은 5월 방중 때부터 기획됐던 것으로, 김 위원장과 정은, 정철 세 부자가 김일성 사적지를 답사하는 일종의 ‘성지순례’ 성격이 강했다”면서 “김정은을 중국 측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히 비밀로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김정은의 동향은 중국 측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차례 방중 당시 김정은의 모습은 김 위원장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영상에 묻어 외부로 나갔지만 북한 당국이 두 차례 모두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지는 않다고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 김 위원장의 주변에서 있는 김정은 모습은 조선중앙통신(5월 방중)과 조선중앙TV(8월 방중) 보도를 통해 외부로 나갔는데, 특히 5월 방중 직후에는 중앙통신 사진이 실무자의 실수로 노동신문에 실려 발행 당일 신문은 회수하는 대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이번 당대표자회 직후 최태복 당 비서가 서둘러 중국에 간 것도 후계자 김정은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제 김정은도 공식적인 후계자가 됐기 때문에 과거 김 위원장처럼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3년 후인 1983년 6월 당시 후야오방(胡耀邦)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음.

라. 일·북 관계

● 日 납치문제담당상 “조선학교 교과서 고쳐야”(10/9)

- 일본의 납치문제담당상이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음. 야나기다 미노루(柳田稔) 법무상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조선고급학교(고교)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은 “납치문제”를 극대화해 반(反)공화국, 반(反)총련 운동을 벌였다’고 적거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남조선의 날조’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야나기다 납치문제담당상은 “교과서에 우리가 승복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어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고치지 않으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하지 말라고 문부과학상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음.

● 日총리 “北의 핵.미사일 개발 日에 위협”(10/5)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4일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비난했음. 간 총리는 이날 브뤼셀에서 개막한 제8회 아셈(ASEM)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북한의) 인근에 있는 일본에 실질적인(real)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 간 총리는 “북한은 또 국제적 핵무기 비확산 제도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6자회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은 실질적 행동을 통한 비핵화 등의 조치를 진지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그는 이어 “모든 국제사회는 (대 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연관된 합의에 따른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FTA 현안해결 실무협의 난항(10/10)

- 한미 양국 정상이 체결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비준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합의한 ‘FTA 현안해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한미 정상은 지난 5월말 토론토 회담에서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실무협의를 통해 현



안을 타결키로 했으나 양측은 아직 공식 협의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23일 일본에 이어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인사간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나 논의진전을 위한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음. 이번 협의에서도 미국측은 한미 FTA 현안 해결을 위한 미국측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자동차 및 쇠고기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음.
- 반면에 한국측은 기존에 서명된 협정문을 수정할 수 없으며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음. 외교통상부는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EU FTA 서명행사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미측 요청에 따라 7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에서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금번 비공식 협의에서 미측은 자동차 및 쇠고기 분야가 (실무협의를) 주관심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미측은 이와 관련 공식 제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음. 다만 미측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과 관련된 기초적 구상과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접근 확대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합의·서명한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쇠고기 문제는 FTA와는 별개의 이슈로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 내달 11·1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이제 한 달여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고, 내달 초에서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열리는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정상간에 이뤄진 약속 시한내에 FTA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지 주목됨. 이와 관련, 외교부는 “양측은 추후 상호 편리한 일시 및 장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간에 논의 진전을 위한 절충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밝혔음.

● 게이츠 “北도발 불용”..확장억지력 재확인(10/9)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발과 침략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 게이츠 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으며, 한미 군사동맹은 전에 없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음.
-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무기 위협은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 포인트”라면서 “미국은 핵우산에서부터 재래식 공격, 미사일 방어에 이르기까지 미국 군사력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한국에)



확장역지력을 제공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의 후계세습 문제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운으로의 권력승계가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고 전제, “실제로 그가 어느 시점에 권력을 넘겨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놓고 우리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권력 이양기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는 점에 우리 두 장관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 김국방 “北 3대세습 어떤 결말 속단못해”(10/9)

- 김태영 국방장관은 8일 오후 “북한의 3대 세습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지금은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면서 “(세습체제 구축이)어떤 형태로 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알링턴 코트스위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대 세습체제가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김정운의 행동이 (언론)보도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대장 호칭을 받으면서 모습을 드러냈고 김정일 위원장이 움직일 때 (군부대 훈련장에) 나타난 것”이라며 “지금은 그의 행보를 신중히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한미간에 북한 급변사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는 질문에서는 “그건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모든 것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하지만, 앞으로 논의를 계속 해야 한다. 이번 미팅은 포괄적인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 장관은 ‘확장억제를 작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북이 핵으로 공격을 해올 경우 재래식 무기체계와 핵 방어 체계를 모두 동원해서 저지 역제를 하게 된다”며 “한국 만의 능력 뿐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역제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기체계를 어떻게 정비하고 협의할 것인가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군의 동향은 수시로 바뀌지만, 지금은 특별한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주한미군 이전 일정과 비용 문제 협의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틀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다. 비용문제는 내년 전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 SCM서 뭘 논의했나>(10/9)

- 미국에서 8일 열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핵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 높이고 북한의 불안정 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공키로 공약한 확장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음.
 - ◇美, 對韓 방위공약 재확인 =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핵심임무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임을 재확인했음. 한반도 위기시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가용한 미군 전력 및 능력을 한반도로 전개하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복무기간을 정상화하는 조치들이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임.
 - 여기에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핵 프로그램 및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조치 요구를 공동성명에 명기한 것은 북한 핵에 대한 양국의 분명한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히 핵 확장억제 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상시 협의기구를 가동키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은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맞서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 등을 동맹인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는 것임.
 -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미측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 평가하는 한편 핵 및 WMD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내년부터 상시 가동을 추진키로 했음. 연내에 실무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편성·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부터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임.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들어맞는 맞춤형 핵 및 WMD 대응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북한 등 다양한 위협대응 작계발전 전략기획지침 = 전략기획지침은 국방부 차원에서 작전계획(작계) 수립 및 발전의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함. SCM에서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MC(군사위원회)에 이 지침을 하달하면 MC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작전계획 작성과 관련한 전략기획지시를 하달함. 합참과 연합사를 비롯한 작전계획 수립 제대에서는 이를 기초로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하게 됨.
 - 이번 SCM에서 전략기획지침을 내리게 된 것은 전작권 전환시기가 조정됐고, 북한의 위협과 국내외적인 상황 등 전략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계획작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지침은 비대칭 위협을 포함한 최근 북한의 위협 변화와 국지도발, 전면전 등 광범위한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작계 5027과 이를 대체할 신작계 5015 등을 통합한 단일 전략지침을 말함. 기존 연합방위체제와 2015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체제에 모두 적용되게 됨. 여기에서 이번 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처음 명기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임.

- 김 장관과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SCM 회의에서 월터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불안정 사태,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청취했다’라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명기된다는 것임.
-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미 군사당국이 공개문서인 공동성명에 불안정 사태를 명기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삼남인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 구축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됐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실제 이번 회의에서는 당대표자회를 통한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동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음.
- ◇ ‘전략동맹 2015’와 ‘국방협력지침’ = 애초 2012년을 목표로 했던 전작권 이행계획(STP)은 군사적인 계획에 국한됐으나 전략동맹 2015는 군사조치 상황과 동맹현안이 포함된 포괄적인 추진 상황을 담았음. 국방부는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연습,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등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제반 군사적 조치사항들이 담겨 있다”며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략문서 정비 등의 추진계획도 포함됐다”고 말했음.
- 특히 미측은 이와 관련, 오는 2015년 이후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 능력의 제공과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전략정보와 핵우산 등 지속능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음.
- 이밖에 지난 60년 동맹의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 동맹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국방협력지침’도 합의 서명했음. 앞으로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분야로 정보, 계획발전 능력,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 상호운용성, 연합연습 개선, 교육·훈련 교류로 명문화했음. 더욱이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해 한반도에서 확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 범세계적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임.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훈련 등 WMD 비확산 활동지원과 양자(한·미), 3자(한·미·일), 다자 활동을 통한 지역 협력 강화, 국제안보 및 평화유지 노력 강화도 국방협력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한미, ‘北 불안정사태’ SCM 공동성명에 첫 명시(10/9)

-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처음 명기됐음.
-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부터 2시간가량 미국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SCM 회의에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불안정 사태,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청취했음.
-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와 관련, 양국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일명 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 서명하고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군사위원회(MC)에 이를 하달했음. MC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작전계획 작성과 관련한 ‘전략기획지시’를 하달하고, 합참과 연합사에서는 이를 기초로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함.
- 이번 SCM에서 하달된 전략기획지침은 비대칭위협을 포함한 최근 북한의 위협 변화와 국지도발, 전면전 등 광범위한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작계 5027과 이를 대체할 신(新) 작계 5015 등을 통합한 단일 전략지침임. 기존 연합방위체제와 2015년 이후 전 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체제에 모두 적용됨.
- 또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정책적인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신설, 내년부터 상시 가동을 추진키로 합의했음. 이 위원회는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 평가하는 동시에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핵우산 제공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확장억제와 관련한 재래식(비핵) 전력의 제공도 논의하는 협력 메커니즘 성격을 가지게 됨.
-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간의 협력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외 지역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내에 실무회의가 개최되는 이 위원회는 당분간 독립 운영되지만 앞으로 SCM의 분과위원회로 격상을 추진할 계획임. 논의 내용은 2개월에 한 차례씩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보고됨.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전략 안보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핵.WMD억제 대응전략을 만들어내며, 연 2~3회가량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 NATO간의 핵관련 의사 결정기구인 NPG(핵기획단)와는 달리 주로 정책적인 대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 장관은 2015년으로 연기된 전작권의 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 위한 이행문서인 ‘전략동맹(SA) 2015’에도 합의 서명했음. 이 문서에는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작전계획 발전,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를 비롯한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진행되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략문서 정비 등의 추진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 미측은 이와 관련, 한국이 오는 2015년 이후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추기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제공하고 한미동맹이 지속하는 동안 전략정보와 핵우산 등 지속능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음. 이어 양 장관이 합의 서명한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인 ‘국방협력지침’(DCD)에는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해 한반도에서 확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 범세계적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음.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훈련 등 WMD 비확산 활동지원과 양자(한·미).3자(한·미·일).다자 활동을 통한 지역 협력 강화, 국제안보 및 평화유지 노력 강화도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음. 양 장관은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 생화학테러 대비, 즉응 대기전력 보강 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음.
 - 군의 한 관계자는 “G20 회의기간 미국의 최첨단 감시자산이 한반도로 추가로 전개되고 생화학테러 대비 전문요원들의 파견 등도 협의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전했다. 이밖에 양국 장관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으며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하고,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핵관련 시설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징후 등 특이동향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란 등의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공동성명에 반영했음.

● 한미, 오늘 제42차 SCM회의 개최(10/8)

- 한국과 미국은 8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는 실효적인 대응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츠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SCM에서 단독 및 확대회담을 통해 대북정책 공조와 미국의 방위공약 실현, 전략동맹 2015, 국방협력지침,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 등을 협의하고 관련문서에 서명할 계획임.
- 특히 회의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체계 구축 본격화 등으로 북한내 불확실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인식아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연합대



북감시태세 강화 등 공조 방안도 논의될 예정임.

-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은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 위협 관리와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마련하고 ‘전략동맹 2015’의 합의로 전작권 전환과 동맹현안 발전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며 “양국 장관이 서명하는 ‘국방협력지침’은 포괄적 전략동맹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국방협력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SCM 후 회의결과가 반영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임.

● 한미, ‘김정은 후계’ 北정세 협의(10/7)

-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7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북한정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양국간 현안을 협의했음. 김 차관보와 캠벨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김정은으로 후계구도가 가속화된 북한 정세와 핵문제를 포함해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내달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의제 및 준비과정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영해분쟁을 비롯해 동북아 정세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음.
- 캠벨 차관보는 김 차관보와 면담에 앞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6자회담 재개와 북핵 문제를 논의했음.

나. 한·중 관계

● 원자바오 “한국민, 中 약간 오해”(10/5)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약간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찬성했고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해 여러차례 애도의 뜻을 밝혔다”며 “사건을 일으킨 측에 대한 규탄의 뜻도 여러차례 천명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 이에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천안함 문제에 너무 집착한다고 볼지 모르나 남북관계에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건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에 대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자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식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 두 정상은 내달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IMF(국제 통화기금) 쿼터 조정과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음. 원 총리는 “중국은 G20 정상회의가 잘 개최되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G20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과거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유럽과 미국은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의 비중이 커지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런 현실은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달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고, 원 총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음. 원 총리는 또 “중국과 일본은 다오위타이(釣魚島.일본명 센카쿠 <尖閣>열도) 문제를 놓고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어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나는 중일간 전략적 호혜관계가 중요하고 양국은 물론 아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음.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협력하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이밖에 원 총리는 “양국간 교역 증진을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ASEM회의장 내에서 이뤄진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약 40여분간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과 원 총리의 회담은 이번이 5번째임.

● 외교부 “중어선 불법조업에 필요조치 취할 것”(10/5)

- 외교통상부는 울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과 관련,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음. 외교부는 업무현황보고 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측에 우리 수역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외교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크게 부각된 측면이 있으나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왔다”며 “앞으로도 외교적 예방조치와 함께 강력한 단속.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 한·일 관계

● 日외상 “조선왕실의궤 인도 조약안 조기 제출”(10/9)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궁내청에 보관된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를 조기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음. 마에하라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인도 하겠다”며 “(문화재 인도에 관한 조약안을) 이번 국회(임시국회)에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무 수준의 협의가 어디까지 진전될까가 문제”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조약안을 제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시사했음. 지난 1일 시작된 일본의 임시국회 회기는 12월3일까지임.

- 마에하라 외상은 또 인도 대상 문화재의 범위와 관련해 “일한(한일)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을 전달했고, 아주 우호적인 형태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8월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 사죄 담화에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공립도서관 등에 보관된 약탈 문화재 전체가 아니라 궁내청에 보관된 몇몇 도서를 돌려주는데 그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日 방위성 “부산 PSI훈련에 호위함 2척 참가”(10/6)

- 13, 14일 이틀간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이 참가할 예정임. 일본 방위성은 6일 한국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PSI 훈련인 ‘이스턴 앤데버 10’에 호위함 2척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 일본이 파견하는 함정은 ‘이소유키’(2천950t)와 ‘아사유키’(3천050t)로 모두 호위함대 제13호위대에 속해 있고, 사세보(佐世保)항이 모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척에는 370명이 타며, 헬리콥터 1대씩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호위함은 이번 훈련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의심 물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함정을 수색하고, 추격·조사하는 훈련에 참가할 예정임. 일본은 호위함에 외무성이나 해상보안청 직원도 태워 보낼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음.

● 李대통령 제안 한중일 정상회담 日도 찬성(10/6)

-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도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뵈기에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당국이 그런 방향으로 절충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향해 한중일 3국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정상들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3국 정상회담 성사에 기대감을 표시했음.
- 이 대통령은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달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기회를



이용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의했고, 원 총리는 이를 수락했음.

● **韓日 정상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강화 노력”(10/4)**

- 제8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음. 간 총리는 브뤼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밝고 미래지향적인 100년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 한일 정상은 또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음. 아울러 양국 정상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재개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기로 했음.

라. 미·중 관계

● **오바마, C-130수송기 中수출 희망(10/1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양원 의장에게 C-130 수송기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음. 10일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서한에서 자신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고려해 C-130 수송기의 수출 금지를 해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중국이 C-130을 수입해 군용이 아닌 해상 유류 오염 대처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그러나 백악관이 허가하려는 C-130 수송기 수출의 시기, 규모, 단가 등 자세한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음. 만약 미국 의회가 동의해 C-130 수출이 이뤄지면 이는 1989년 텐안먼 사태를 계기로 무기금수 조치가 취해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에 첨단 군수용품을 판매한 사례로 기록되게 될 전망이다.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전략 수송기인 C-130은 미국 공군의 1천여대가 비롯해 한국, 일본 등 50여 개국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음.

● **中, 점진 절상 재확인..美 “지켜본다”(10/8)**

-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易綱) 부행장은 7일 위안화 가치를 “점진적”으로 절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이 부행장은 이날 워싱턴 회견에서 “중국은 (환율 문제에서) 기여하길 원한다”면서 “우리의 접근은 (변함없이) 점진적인 것”이라고 밝혔음.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6일 중국-유럽 상공인 회의 연설에서 “중국이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위안화를 20-40% 절상한다면 중국 기업의 대량 도산이 불가피하며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세계 경제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원 총리는 위안 환율에 점진적으로 탄력을 부여하려는 방침이 일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6월 달러 페그를 완화한 후 위안 가치가 2% 가량만 뛰도록 허용했음.
-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C)의 외환전략 글로벌 책임자인 로버트 신체는 “위안 환율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데 중국이 화났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두말할 것없이 중국과 유럽 모두가 환율 안정이 좋은 것이란 입장이지만 그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환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 “중국이 이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가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하원 세출위의 샌더 레빈 위원장(민주: 미시간주)도 이날 미 의회에서 위안환율 보복법이 성안될지 여부는 내달의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음. 레빈은 “그때까지 의미심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의회가 중간선거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상원 절차를 남겨놓고 있음.

● 조지워싱턴호 홍콩입항 취소..이유는?(10/8)

- 미국 제 7함대의 주력 전력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10월 홍콩에 입항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조지워싱턴호는 당초 10월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음. 제 7함대 공보장교인 제프 데이비스 중령은 조지워싱턴호가 이끄는 항모전단이 10월 홍콩을 방문하기로 잠정적인 계획을 세웠었다면서 “다른 작전 수행때문에 홍콩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음.
- 그는 또 “스케줄 변경은 흔한 일이다”면서 조지워싱턴호의 홍콩 방문 계획 취소가 중국 정부의 압력이나 반대 때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비스 중령은 “USS 사일로”를 비롯한 다른 함정들은 예정대로 홍콩을 방문하게 된다”면서 “홍콩은 미 제 7함대의 장병들이 선호하는 기항지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조지워싱턴호도 홍콩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실제로 배수량 9천600톤급 이지스 순양함인 ‘USS 사일로’는 7일 홍콩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제 7함대측은 조지워싱턴호의 홍콩입항 계획 취소와 관련해 ‘작전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조지워싱턴호



의 서해 훈련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음. 특히 조지워싱턴호의 홍콩기항 계획 취소 결정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다음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국방장관확대회의’에서 회담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2007년 11월 미국 정부의 달라이 라마 환대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조치 이후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의 홍콩 입항을 거부한 바 있음. 키티호크는 이후 5개월만인 2008년 4월 중국측의 허가를 받아 홍콩항에 입항했었음. 이후 2009년 10월 조지워싱턴호, 2010년 2월 니미츠호를 비롯해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수시로 중국의 허가를 받아 홍콩항에 입항한 바 있음.
- 한미 양국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상에서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한 가운데 ‘불굴의 의지’ 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서해상 훈련에도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측은 수차례 조지워싱턴호의 서해훈련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을 두고 있는 조지워싱턴호는 미국 제 7함대의 주력 전력이자 미국 영해 밖에 항구적으로 정박해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임. 9만7천t급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는 비행갑판의 면적이 길이 360m, 폭 92m로 축구장의 3배에 달함. 6천여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조지워싱턴호는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 2000)를 비롯해 슈퍼호넷(F/A-18E/F), 호넷(F/A-18A/C) 전투기 등 각종 비행기를 80대까지 탑재할 수 있어 웬만한 나라의 전체 전력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미-중 하노이서 국방장관회담 추진(10/6)

- 미국 국방부는 내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안보관련 회의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5일 밝혔음.
- 미·중 양국 실무자들은 내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국방장관확대회의’에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회담을 갖기위해 실무적인 사항들을 협의중임.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확인된게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양측 모두 이 회담을 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음.
- ‘아세안국방장관확대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가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8개국의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이번에 처음 열리는 것임.
- 중국은 올해 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 직후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음. 미·중 양국관리들은 하노이에서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 외에 게이츠 국방장관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희망하고 있음. 이와 관련, 중국은 이미 게이츠 장관의 방중을 바란다는 초청장을 보냈으며, 미국 방부는 구체적인 방중 일정을 검토해 왔다고 모델 대변인은 말했다.

● 美 “中-아세안 영토분쟁 방지규약 지원”(10/4)

- 미국은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진행하는 영토분쟁 방지규약 마련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해리 토머스 필리핀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는 4일(현지 시각) 외신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를 둘러싼 중국과 아세안 간 갈등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토머스 대사는 “미국은 중국과 아세안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중국과 아세안이 “특정 사항과 관련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머스 대사는 그러나 미국이 어느 국가와도 갈등 관계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여러 개의 섬과 산호초로 이뤄진 난사군도 지역은 원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아세안 국가들이 각종 원자재를 수송하는 해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이 병력을 배치하고 있음.

라. 중·일 관계

● 中 “희토류, 협상카드로 사용안할 것”(10/8)

-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8일 “중국은 희토류(稀土類)를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발언을 크게 보도했다. 원 총리의 이 발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유럽 상공인 정상회의 연설에서 나온 것으로, 관영매체가 다소 늦게나마 이렇게 비중있게 보도하는 것은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 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며 “중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수출을 막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막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 “여러가지 전자장비 등의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 광물과 금속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원 총리는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희토류에 대한 내수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며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 총리의 이런 발언은 최근 중국이 일본과의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갈등사태에 대일 희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쓰는데 대해 국제적인 반발이 거세지고 미



국을 필두로 한 연대 대응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실제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은 6일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열린 ‘성장 로드맵’ 공개 토론회에서 최근 중국·일본 간 영유권 분쟁 외중에 표면화된 희토류의 자원무기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다음 달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문제 논의를 제안했음. 희토류 금속은 스칸듐, 이트륨 등 희귀한 금속 원소를 일컫는 말로 아이팟에서부터 풍력터빈, 컴퓨터, 휴대전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까지 첨단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이며 중국은 1980년대부터 저가로 희토류 금속을 수출해왔음.
- 이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경제성이 떨어진 자국 광산을 폐쇄하는 대신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으며 현재 중국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함. 희토류 금속은 중국의 네이멍구와 쓰촨(四川)성, 장시, 광둥(廣東), 후난(湖南)성, 푸젠(福建)성 등에 많이 매장돼 있음. 그러나 희토류에 대한 대중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공급난에 처하게 되자 울들어 미국, EU, 멕시코 등은 중국이 부당하게 희토류 9개 금속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임.

● “日, 센카쿠 선박 충돌 비디오 비공개”(10/8)

- 일본의 정부·여당이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충돌 사진을 공개하지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비디오를 공개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상호 비방전이 재연되면서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의 관계 개선 흐름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가 비디오 제출을 의결할 경우 예산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만 비공개를 전제로 제공하기로 했음.
- 법무성은 구속기간인 지난달 24일 ‘처분보류’로 석방한 중국인 선장의 기소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조사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현 시점에서 국회에 비디오를 제출하는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음.
- 일본 언론은 지난달 7일 센카쿠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바 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디오를 공개한 적은 없음. 일본 정부는 자국 영해인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정선명령을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순시선을 들이받았다면서 촬영된 비디오를 보면 중국 어선의 고의성이 확연하다고 주장해왔음.



● 日 “中 어업지도선 센카쿠서 철수”(10/6)

-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인근 해역을 오가던 중국 어업지도선 2척이 철수했다고 일본 정부가 6일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레이더를 이용해 이들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한 결과 “(이날) 새벽을 전후해 해당 해역을 떠났다”고 확인했음.
- 중국 정부는 지난달 8일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자국 어선 선장이 일본 당국에 체포되자 외교와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일본에 공세를 퍼는 한편, 같은 달 23일에는 어업지도선을 이 해역에 보내는 등 보복조치에 나섰다. 이날 중국 어업지도선 철수는 앞서 5일 폐막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회동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에 합의한 결과로 풀이됨.
- 일본 정부의 한 당국자는 두 정상이 회동 후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각자 주장하면서도 “중-일 관계의 현 실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 中, 다오위다오 해역서 쾌속정 가동(10/6)

- 중국이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해역에 쾌속정을 투입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6일 보도했음. 중국 당국이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쾌속정을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해역을 순찰하는 일본 순시선과의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환구시보의 인터넷사이트인 환구망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오전 8시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농업부 어정(漁政局)국 소속 어업지도선인 ‘위정(漁政) 201호’가 소형 쾌속 한 정을 내려 부근을 순찰토록 했다는 기사와 함께 관련 사진도 게재했음. 중국 당국은 다오위다오 부근에 ‘위정 201호’와 ‘위정 203호’를 보내 사실상 상주시키고 있음.
- 환구망은 소형 쾌속정의 속도가 최고 30노트에 달하는데다 회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순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평가가 나왔다면, 그러나 이로 인해 당시 주변의 일본 순시선들이 크게 긴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순시선 4척이 소형 쾌속정을 바짝 뒤쫓고 에워싸면서 ‘위정 201호’에 무선으로 “뭘 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으며, 통상 하루에 한번 다오위다오 해역을 순회하고 가던 일본 자위대 소속 P-3C 정찰기가 30분 가량 소형 쾌속정의 활동을 관찰하기도 했다고 환구망은 소개했음.
- 일본 정부는 자국 순시선이 나포했던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41)씨를 석방한 것을 계기로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중국 어업지도선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어업지도선 순시를 중단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일본 해양 순시선과 중국 어업지도선 간에 조우가 잇따르는 등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음.
- 중국의 어업지도선은 군함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역시



3천t급인 PLH09호를 순시선으로 보내는가 하면 P-3C 정찰기와 헬리콥터 등을 순찰활동에 동원하고 있음.

● 中-日총리, 아셈 만찬장 밖서 회동(10/5)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4일 밤(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장에서 짧게 회동했음. 양국 지도자간의 회동은 지난 7일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부근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과 어민을 나포한 사건이후 처음임.
- 이날 양국 총리 회동은 만찬 중에 만찬장 밖의 복도에서 25분간 회동한 것으로 정식회담 형식은 아니었음.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화를 나눴다”는 의미로 ‘交談’이라고 표현했음. 아셈 회의장에서도 원 총리와 간 총리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앉았고 단체사진 촬영 때에도 근접하지 않아 서로 마주칠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양국 총리의 회동사실을 확인하면서 양측이 민간교류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고위층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음. 이로써 다오위다오 갈등 이후 중국이 중단을 선언한 일본과의 각종 정부간 교류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임. 앞서 중국은 각료급 교류 중단을 포함해 중일 항공노선 증편 협상 중단, 석탄관련 종합회의 연기를 선언한 바 있으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협상을 중지하고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 가스전 독자개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신화통신은 원 총리가 간 총리와의 회동에서 다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중일간 전략적 호혜관계가 양국민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날 시카타 노리유키(四方敬之) 총리 대변인은 “저녁 식사 이후 두 정상의 만남이 있었다. 그들은 양국 관계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간 총리도 기자들에게 원 총리와의 면담 사실을 확인하면서 양국 관계 강화 노력과 고위급 회담 개최 등 합의 사항을 설명하고 원 총리에게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주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간 총리는 아셈회의 연설에서 지역평화와 안정의 기초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동시에 공고한 신뢰관계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의 중국 어선과 어민 나포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냉정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고 봉황망이 보도했음.
- 봉황망은 이어 원 총리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역 핫이슈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 日외무상 “센카쿠 충돌 재연시 체포할 것”(10/5)

-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일본 외무상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부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다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일본 국내법에 근거해 체포할 것이라는 등 강성 입장을 명백히 했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은 5일 오후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열린 외신 상대 오찬 강연회에서 충돌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센카쿠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따라서 (충돌이) 다시 일어나면 국내법에 근거해 체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 마에하라 외상은 또 체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대해서도 “방위 출동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만큼 그때그때 내각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센카쿠 해역에서 미일 공동 군사훈련을 벌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항모인) 키티호크호를 타고 일본해(동해)에서 벌어진 군사훈련을 시찰한 적이 있다. 어느 해역에서든 여러 형태로 (미일간의) 공동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음.
- 강연 내내 충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일 양국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영토 문제에 대한 강경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됨. 질의응답에 앞서 자신의 외교 방침을 설명할 때에는 “국력을 키우지 않으면 충분한 외교를 할 수 없는 만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간 자유 무역 체제 구축과 자원·식량 확보, 인프라·기술 수출을 경제 외교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 특히 자유 무역 체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FTA를 체결하더라도 세계에서 싸울 이유가 없다”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범태평양파트너십(TPP)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음.

마. 기 타

● 中인민해방군, 3만명 참가 군사훈련(10/10)

- 중국 인민해방군이 10일 전투병력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사명(使命) 행동-2010’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첨단전투에서의 능력 배양이 목적으로 중국 내 7개 군구 가운데 베이징(北京), 란저우(蘭州), 청두(成都) 등 3개 군구가 참여한다고 인민해방군 소식통이 전했다.
- 또 전투기와 수송기, 공격용 헬기 등도 동원되며 보병과 낙하산부대, 공군 등이 합동 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이번 훈련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



혔음. 중국 인민해방군은 통상 군사훈련의 경우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훈련 종료이후에 일부를 공개해왔으나 올들어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 등에서 미국 등과의 마찰이 잇따르자 훈련 계획을 사전에 알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앞서 지난 1일 신화통신은 베이하이(北海)함대가 칭다오(靑島)시 남동쪽 해상에서 실탄사격을 포함한 나흘간의 해상훈련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으며, 시나닷컴 등 중국 포털사이트는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사가 운영하는 '중국군망' 등에 올라 있는 사진을 게재,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함정과 전투기, 무기 등을 간접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음.

● “러, 서울 G-20 정상회의 적극 지원”(10/8)

-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러시아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러시아 대통령 경제보좌관(경제수석)은 7일 오후 주러 한국 대사관 주최로 모스크바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G-20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회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혔음.
-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드보르코비치 보좌관은 “G-20 회원국들은 이 모임을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최상위 포럼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G20은 아직 미성숙한 제도”라며 “회의의 합법성을 강화하려면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의 공식기구뿐 아니라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비정부기구(NGO) 등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관련 의제 논의를 중심으로 시작된 G20은 이제 더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포럼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선진국과 비(非) 선진국 간 협력 구조, 에너지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드보르코비치는 또 “서울 회의에서는 특히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난 4차례에 걸친 정상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들의 충실한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G20대사)은 “한국도 기존 4차례의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비(非) G-20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회의의 주요 의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이에 앞서 이윤호 주러 한국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11월 정상회의의 주최국이며 의장국인 한국은 세계 각국과의 적극적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한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안정망 구축 등의 문제를 중심 의제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음. 이날 세미나에는 러시아 정부와 학계인사 30여명, 모스크바 소재 각국 외교단 60여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서울 G-20 정상



회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음.

● 러시아 전폭기 동해 상공 등 11시간 비행(10/6)

-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MS가 태평양과 동해 상에서 순찰 비행을 실시했으며, 한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러시아 폭격기를 경계 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드릭 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Tu-95MS 전략폭격기가 (태평양과 동해의) 공해상에서 11시간 동안 순찰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음. 드릭 대변인은 “모든 비행은 공해상에서의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해 이뤄졌으며 다른 나라의 영공 침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음.
- 그는 그러나 “러시아 전폭기가 순찰 비행을 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 전투기 F-15, F-16, F-2가 뒤따라 비행하며 감시했다”고 설명했다. 소련 붕괴 이후 예산 부족 문제로 태평양과 대서양, 북극해 등에 대한 전폭기의 순찰 비행을 중단했던 러시아 공군은 2007년 8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이들 해상에서의 순찰비행을 재개했음.
- 합동참모본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공군기가 5일 동해지역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경고통신 2회를 실시했다”며 “체공 중이던 KF-16 2대를 즉각 임무전환해 대응했고 이어서 지상대기하던 공군 KF-16 2대를 긴급 출동시켰다”고 밝혔음. 합참은 “오전 9시34분 러시아 공군기의 우리 KADIZ 진입 이후부터는 영공진입 차단비행과 이탈을 요구했다”며 “러시아 공군기는 오전 10시1분 KADIZ를 이탈했고 총 27분간 우리 KADIZ 내를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는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KADIZ을 12차례나 진입했으며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과 미군의 동향을 정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KADIZ는 동·서·남해상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국제법상 영해는 아님.

● “中, 對대만 경협 외중에도 군사위협 강화”(10/5)

- 중국이 대만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외중에도 군사적인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고 대만 주요 언론들이 국방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5일 보도했음.
- 앤드루 양 대만 국방부 부부장은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4일(현지시간) 진행된 미-대만상업협회행사에서 중국이 대만과 경제적인 관계를 급격하게 확대하는 가운데에서도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양 부부장은 중국이 특히 점점 더 많은 최첨단 무기를 대만을 향해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최근 약 1천500기의 미사일을 대만을 향해 배치했으며, 대만과 관계 개선국면에서도



- 미사일 배치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음. 양 부부장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군사적 입장은 최근 발효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과 상충한다고 말했다.
- 양 부부장은 중국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5년간 중국의 군비 강화는 기본적으로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음. 양 부부장은 신형 F-16전투기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1] <제42차 SCM 공동성명 전문>(연합뉴스, 10/9)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오후(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제도화 등 1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 『 1.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가 2010년 10월8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김태영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0년 10월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한민구 대장과 미 합중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제독은 제32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표명된 바와 같이,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과 여타 분야에서의 보다 포괄적인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맹협력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양측이 북핵 문제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했으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4.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의 천안함이 북한의 공작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 합동결과 보고서가 발간된 것과, 천안함 침몰에 관한 특별조사에 대한 유엔사의 특별보고서가 유엔안보리에 제출되어, 안보리 공식문서로서 정식으로 회람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환경하에서의 북한의 군사활동 뿐만아니라 한반도 및 동·서해에서의 한미 연합연습 등을 포함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



였다. 특히, 금년 서울 개최 G-20 정상회의 때까지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양자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계획 발전과 광범위한 연합 훈련·연습은 한반도에서의 미래 도전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5. 양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의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미연합방위 증강을 위해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합중국의 이러한 공약이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공약과 더불어 모든 주한미군 소속 장병들의 복무기간 확대 및 복무 정상화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6. 게이츠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이 과거 이라크에서 뿐만 아니라 금년에 지방재건팀 파견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의 아티티 재해복구 활동, 아덴만에서의 해적 퇴치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여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특히 금후 이달중에 실시되는 ‘Eastern Endeavor 10’ PSI 연습을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협력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양 장관은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9.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진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6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의지를 기반으로 2011년과 그 이후에도 SPI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0. 양 장관은 연합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동안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유지 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주요 국방 우선과제들과 미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양 장관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를 승인 서명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MCM 회의를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데 있어 전작권 전환검증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추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 합중국의 공약도 재확인하였다.
11.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적 공동 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완료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 환경평가절차(JEAP)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작년에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통해 합의되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국방협력지침을 승인 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동 국방협력지침이 양국간 연합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국방협력관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지역·범세계적 안보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3. 양 장관은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략지침·권한을 한미 군사위원회에 제공하는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 서명하고, 동 전략기획지침이 대한민국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을 억제하고, 군사대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조치임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본 지침이 잠재적인 위기상황하에서 한미동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4. 김태영 장관은 게이츠 장관에게 미 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2차 SCM과 제32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3차 SCM을 201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기대한다.』

threek@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10/09/0503000000AKR20101009003500043.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